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기반 질문지 적용에 대한 연구

정 은 경

강원대학교

박 상 혁

University of Missouri

이 수 란

백석대학교

손 영 우[†]

연세대학교

Haidt와 Joseph(2004)이 제시한 도덕적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에 근거하여 개발된 도덕적 기반 질문지는 서구권에서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덕적 기반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부분적 혹은 단편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으나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타당성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는 대학생 집단 뿐 아니라 20대~50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덕적 기반 질문지가 한국사회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 32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하위 척도 중 하나인 도덕적 판단 척도는 유의미한 요인구조를 전혀 도출하지 못하였다. 도덕적 관련성 척도는 원저자들의 5요인 모델이 아닌 3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집단규범준중, 공정성, 위해라고 명명되었다. 도덕적 관련성 척도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에서는 집단규범준중과 공정성만이 정치성성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도덕적 기반 이론, 도덕적 기반 질문지, 타당화, 정치적 성향

[†] 교신저자: 손영우,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407호, E-mail: ysohn@yonsei.ac.kr

서 론

현대 사회에서 도덕적 판단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판단 받지 않았던 가치의 위반이 법적 심판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의 가치와 이익의 충돌은 더욱 첨예해졌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자녀가 체벌문제로 부모를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과 의사결정은 도덕적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 혹은 문화와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도덕적 가치 또한 다르다. 위의 자녀 체벌의 문제를 살펴보다도, 부모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체벌할 수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여 체벌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자녀 입장에서는 체벌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위해를 입히는 행동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가 중요시하는 도덕적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나아가서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 Theory: MFQ, Haidt & Graham, 2007; Haidt & Graham, 2009; Haidt & Joseph, 2008; Haidt & Joseph, 2004)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및 판단 영역을 5가지로 제시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도덕적 기반 질문지(Moral Foundation Questionnaire, Graham, Nosek, Haidt, Iyer, Koleva, & Ditto, 2011)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도덕적 기반 질문지가 한국에서도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타당화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덕적 기반 이론과 도덕적 기반 질문지

도덕적 기반 이론은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규정되어 온 ‘도덕’의 정의에 대한 수정을 제안한 이론이다. 기존 서구중심의 학문에서는 무엇이 도덕(morality)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로 정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예, Turiel, 1983).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차원에서 도덕을 규정하는 것은 서구권 이외의 문화에서 발생하는 많은 ‘도덕적 처벌’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지되었지만 오랫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던 간통죄를 살펴보자. 간통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의와 권리라는 관점에서는 도덕의 판단대상이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문화에서 간통은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간통을 행한 자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정의와 권리라는 관점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aidt와 Joseph(2004)은 이처럼 비서구권 문화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도덕적 판단 가치 또한 도덕적 영역에 포함시켜야함을 주장하면서 도덕적 기반 이론을 제시하였다. 상기 저자들은 도덕적 기반에는 기존의 도덕 영역인 위해(harm/care), 공정성(fairness/reciprocity) 뿐 아니라, 내집단(ingroup/loyalty), 권위(authority/respect), 순수함(purity/sanctity)이 존재한다고 규정하였다. Haidt(2008)는 위해와 공정성은 개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개인적 가치(individualized approach)에 해당하며, 내집단, 권위, 순수함은 집단을 결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가치로, 결속적 접근(binding approach)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상기한 5가지 도덕적 기반을 평가하기 위해 Graham 등(2011)은 도덕적 기반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미국 표본을 이용하여 질문지 및 도덕적 기반 이론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도덕적

기반 설문지는 크게 도덕 관련성(moral relevance)과 도덕 판단(moral judgment) 2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 관련성은 추상적인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고 이것이 도덕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 판단은 도덕적 직관을 강하게 촉발할 수 있는(Haidt, 20010; Graham et al., 2009에서 재인용) 좀 더 구체적이고 맥락화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덕적 판단과 가치라는 것은 Haidt와 Joseph(2004)이 지적하였듯이, 문화차이가 상당히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기반 질문지가 한국에서도 도덕적 기반 평가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국 표본을 이용하여 도덕적 기반 이론을 검증한 논문은 현재까지 총 4편이 검색되며, 이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과 도덕적 기반 이론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 중 2편(정은경, 손영우, 2011;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은 도덕적 기반 이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결망 분석을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사건을 판단할 때 극단적 진보는 공정성과 위해관련 개념들을, 극단적 보수는 내집단, 권위, 순수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기반 이론을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나머지 2편(Kim, Kang, & Yun, 2012; 이재호, 조궁호, 2014)은 도덕적 기반 질문지를 사용하여 정치성향과 5가지 도덕적 기반의 사용을 알아본 연구들이다. Kim 등은 도덕적 기반 질문지 결과에 대해 미국 표본과 한국 표본을 비교하였는데, 전반적 패턴을 유사하지만 두 집단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표본은 미국 표본에 비해 순수성 가치를 도덕적인 것과 더 관련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순수성과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는 미국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5요인 모델은 상당히 낮은 적합도를 보여 한국인 샘플에서는 도덕적 기반 질

문지의 구조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재호와 조궁호의 연구에서도 한국 샘플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과 도덕적 기반척도와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정치적 성향과 도덕적 기반과의 관계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진보 집단은 위해와 공정성을, 보수집단에서는 내집단, 권위, 순수성을 도덕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도덕적 기반 질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하위 척도 중 하나인 도덕 판단 척도에서만 5요인 모델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된 수치가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어서 Graham 등(2011)이 제시한 척도 구조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복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다. 아울러, 한국 샘플을 대상으로 한 상기 2개 연구는 모두 대학생 표본을 사용하였다는 결정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 기반 이론이 정치적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Graham et al., 2011; Graham et al., 2013; Lewis & Bates, 2011; 정은경, 손영우, 2011;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성향은 연령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박명호, 2012; 최유정, 최새별, 2013). 따라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를 한국 사회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을 포함하여 도덕적 기반 질문지가 한국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저자인 Grham 등(2011)이 사용한 방식을 적용하여, 정치적 성향 측정을 통해 준거관련 타당도를 탐색하고 슈와츠의 가치척도(Schwartz, 2009)를 적용하여 수렴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성인 327명(남성 243명, 여성 84명)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50% 무선추출을 통해 표본A(165명)와 표본B(162명)로 분할되었는데, 표본A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표본B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타당도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60대는 단 2명으로 모두 60세이므로 50대 집단에 포함시켰다.

연구 도구

도덕적 기반 질문지

Graham 등(2011년)이 개발한 도덕적 기반 질문지(The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MFQ)는 도덕 관련성(Moral Relevance)을 측정하는 15문항과 도덕 판단(Moral Judgments)을 측정하는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덕 관련성 문항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해당 진술문이 본인의 생각과 얼마나 관련되는지를 ‘전혀 관련이 없다’와 ‘항상 관련이 있다’를 양끝으로 하는 6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도덕 판단 항목에 대해서는 각 도덕 판단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양끝으로 하는 6점척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도덕적 기반 질문지 개발 당시 보고된 도덕 관련성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Cronbach's α)는 .65~.71이었으며 도덕 판단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40~.75였다.

본 척도는 연구자가 한국어로 1차 번안한 것을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자가 역번역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항이 최종 수정되었다. 원 문항과 최종 번안된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슈와츠 가치척도(Schwartz Value Scale)

MFQ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슈와츠의 가치척도(Schwartz, 2009) 중 일부 항목을 사용하였다. 슈와츠는 인간의 개인적 가치를 횡문화적으로 조사한 후 10개 항목 57개 인간가치를 제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Haidt와 Graham(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 도덕적 기반과 관련된 가치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위해와 관련된 가치로는 도와주기와 책임을, 공정성과 관련된 가치로는 사회정의, 평등, 자유를, 내집단과 관련된 가치로는 소속감, 국가안보, 가족안전, 충성심을, 권위와 관련된 가치로는 사회질서, 공손함, 전통존중, 권위, 경로사상, 순종을, 순수함과 관련된 가치로는 영적생활, 자기훈련 몰입, 독실한, 깨끗한을 유사 가치로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단어를 읽고 해당 가치가 자신의 삶을 이끄는 원칙으로써 얼마나 중요한지를 9점 척도(-1: 내 가치와 반대된다, 7: 가장 중요하다)로 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평균	연령 SD	20대	30대	40대	50대	성별(남/여)
표본A	36.59	9.61	52명 (31.5%)	48명 (29.1%)	50명 (30.3%)	15명 (9.1%)	122명/43명 (73.9%/26.1%)
표본B	34.99	9.33	54명 (33.3%)	50명 (30.9%)	43명 (26.5%)	15명 (9.3%)	121명/41명 (74.7%/25.3%)
전체	35.83	9.49	106명 (32.4%)	98명 (30.0%)	93명 (28.4%)	30명 (9.2%)	243명/84명 (74.3%/25.7%)

정치적 성향 측정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였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입장은 개인적 자유 및 권리, 그리고 권위와 제도에 대한 순응이라는 도덕적 가치(Graham et al., 2009)에 대한 현실적 구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중시하는 도덕적 가치를 현실에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는 현실적 정치성향을 예측하는 핵심적인 구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들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외현적, 내현적 정치성향을 모두 측정하였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외현적 측정이 좀 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솔직하게 응답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내현적 정치성향 또한 측정하였다. 먼저 외현적(explicit) 정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Graham, Haidt, 그리고 Nosek (2009)이 사용했던 단일 문항 척도를 번역하여 이용하였다. 번역된 문항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시해주세요.’이었다. 설문을 실시할 때는 척도에 표시된 숫자가 참가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척도 양 끝의 점수를 3으로 고정하고 ‘중도’를 0으로 설정해 진보를 선택하든, 보수를 선택하든 선택하는 숫자 값에는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은 7점 척도(1=매우 진보적, 4=중도, 7=매우 보수적)로 변환되어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내현적(implicit) 정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IAT(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IAT는 개인이 가진 태도와 일치하는 조합을 같은 버튼으로 반응하게 할 때는 빠르게 반응하나(예: 꽃과 아름다움) 불일치할 경우(예: 벌레와 아름다움)에는 느리게 반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검사이다(Greenwal, McGhee, & Schwartz, 1998). IAT는 목표개념 구분을 연습하는 1단계(예: 흑인인지 백인인지 구분), 긍정과 부정단어 구분을

연습하는 2단계, 1, 2 단계의 자극이 함께 제시되는 3단계, 1단계의 자극이 제시되지만 반응하는 방식이 바뀌는 4단계(1단계에서 흑인을 오른쪽버튼으로 반응했다면 왼쪽버튼으로 반응하게 함), 2, 4단계의 자극이 함께 제시되는 5단계로 구성된다. 내현적 태도는 5단계와 3단계에서의 반응속도의 차이를 통해 측정되며, 그 값이 클수록 내현적으로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정치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Karpinski(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Graham 등(2009)이 제작한 IAT 로직을 따라 개발하였다. 1단계는 목표자극의 범주를 구별하는 단계로, 주어진 자극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화면에 진보나 보수 정치인의 사진이 나타난 후, 주어진 사진이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게 된다. 2단계는 목표자극과 연합될 자극(연합자극)의 범주를 판단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나’와 ‘타인’ 범주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 스스로, 참가자의 이름 등의 단어는 ‘나’ 범주로, 그, 그녀, 그들 등의 단어는 ‘타인’ 범주로 구분하여 반응 버튼을 누른다. 3단계는 목표자극과 연합자극이 함께 제시되는 단계로, 진보거나 ‘나’ 범주의 단어이면 왼쪽버튼을, 보수이거나 ‘타인’ 범주의 단어이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4단계는 목표자극의 반응방향을 바꾸어 다시 한 번 범주화하는 단계로, 이 단계를 통해 반응방법(오른쪽버튼 vs. 왼쪽버튼)이 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 5단계는 3단계의 단어조합이 바뀐다. 예를 들면 3단계에서 진보-나, 보수-타인 조합이었다면, 5단계에서는 진보-타인, 보수-나 조합이 제시된다. IAT점수는 Greenwald, Nosek 그리고 Banaji(2003)가 제안한 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IAT효과 점수는 5단계와 3단계의 반응시간 차이를 구하여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정치성향과

내현적 정치성향과의 상관은 .50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기초분석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전에, 전체 연구표본에 대한 기초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은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하위요

인과 정치적 성향을 연령별로 분석하여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도덕 관련성의 경우, 위해와 공정성이라는 개인적 가치에서는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위해와 공정성이 도덕과 관련된 정도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층이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결속적 가치에 대해서는 연령차이가 발견되었다. 20대, 30대, 40대는 3개의 결속적 가치 모두에서 50대보다 도덕적 관련성을 낮

표 2. 연령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집단간 차이
도덕 관련성	위해	4.26 (0.84)	4.24 (0.91)	4.16 (0.83)	4.50 (0.68)	n.s.
	공정성	4.47 (0.78)	4.37 (0.85)	4.29 (0.84)	4.33 (0.95)	n.s.
	내집단	3.45 (0.94)	3.53 (0.99)	3.75 (0.94)	4.38 (0.89)	20대<40대*, 50대** 30대, 40대<50대**
	권위	3.32 (0.86)	3.51 (0.99)	3.68 (0.83)	4.26 (0.89)	20대<40대**, 50대** 30대, 40대<50대**
	순수함	3.16 (0.94)	3.20 (1.06)	3.53 (1.00)	4.01 (0.97)	20대, 30대<40대*, 50대** 40대<50대*
도덕 판단	위해	4.47 (0.75)	4.33 (0.86)	4.69 (0.79)	4.97 (0.70)	20대<40대*, 50대** 30대<40대**, 50대**
	공정성	4.53 (0.74)	4.55 (0.79)	4.72 (0.79)	5.07 (0.65)	20대, 30대<50대** 40대<50대*
	내집단	4.14 (0.77)	4.34 (0.81)	4.59 (0.72)	4.80 (0.86)	20대<40대**, 50대** 30대<40대*, 50대**
	권위	3.45 (0.90)	4.09 (0.86)	4.13 (0.76)	4.32 (0.94)	20대<30대**, 40대*, 50대**
	순수함	3.70 (0.93)	4.02 (0.76)	4.42 (0.76)	4.83 (0.66)	20대<30대**, 40대**, 50대** 30대<40대**, 50대** 40대<50대*
정치 성향	외현적	3.77 (1.23)	3.74 (1.21)	3.96 (1.45)	4.73 (1.31)	20대, 30대, 40대<50대**
	내현적	-0.11 (0.46)	-0.09 (0.48)	-0.20 (0.46)	0.16 (0.49)	20대, 30대<50대* 40대<50대**

값은 평균, ()는 표준편차, * $p < .05$, ** $p < .01$

게 평정하였다. 20대는 40대와도 모든 결속적 가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30대와 40대의 차이는 순수함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도덕판단에서는 개인적 가치와 결속적 가치 모두에서 연령차이가 나타났다. 20대는 모든 하위요인에서 50대보다 낮게 평정하였다. 역시 40대와도 공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30대는 권위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요인에서 50대보다 낮은 평정을 하였으며, 40대는 위해, 내집단, 순수함에서 차이를 보였다. 40대는 공정성과 순수함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50대와 차이가 없었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외현적 태도와 내현적 태도 모두에서 50대는 20대, 30대, 40대보다 유의미하게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었으며, 그밖의 연령집단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방법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방식(Maximum likelihood)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전은 요인간 상관이라고 가정하고 직접 오블리민 방식(direct oblimin)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선정을 위해서는 요인부하량이 최소 .5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한 문항이 두 요인 이상에서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거나 두 요인의 부하량의 차이가 .10이하인 경우에는 교차부하가 되었다고 간주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모형의 간명성과 표본크기 민감도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적합도 지수 판별은 Kline(2005)의 지침을 참고하였는데, RMSEA는 .08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적

합한 모형으로 판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원척도 개발자들의 방식을 따라 도덕 관련성 척도와 도덕 판단척도를 분리하여 실시되었다. 최대우도방식의 전제조건인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West, Finch, & Curran, 1995), 모든 변인의 왜도는 2 이하, 첨도는 7 이하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인 Graham 등(2011)이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5요인을 지정하여 도덕 관련성 문항을 분석한 결과, 위해와 공정성을 제외한 요인들에는 서로 일관성이 없는 문항들이 묶여서 의미있는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스크리 도표 및 고유값 분석을 통해 요인수를 추출한 결과, 4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와 ‘공정성’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산출되었으며, 기존의 ‘내집단’, ‘권위’, ‘순수함’ 요인에 해당하던 대부분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제 4요인에는 혼란 및 질서(권위)와 관련된 문항과 역겨움(순수함)에 관련된 문항이 묶여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교차부하되어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이 산출되었다. 제 1요인은 집단의 암묵적 규범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으로(7번, 9번, 10번, 11번, 15번), ‘집단규범존중’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요인은 ‘위해’와 관련된 문항들, 제 3요인은 ‘공정성’과 관련된 문항들이 묶여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구조를 보였다. 최종 문항과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도덕 판단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원 개발자들이 제시한 5요인 모델과 스크리 도표 및 고유값 분석을 통해 얻어진 4요인 모델은 모든 요인에서 서로 비일관적인 문항들이 묶여서 의미있는 해석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표 3. 도덕 관련성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직접 오블리민 회전 요인부하량

문항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7. 어떤 사람이 애국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	.64	.09	.20
9.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웠는지 여부	.75	-.07	.12
10. 어떤 사람이 권위에 대해 존중했는지 여부	.87	-.02	-.05
11. 어떤 사람이 사회의 전통에 순응했는지 여부	.76	-.03	.00
15. 어떤 사람이 신이 인정할만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여부	.67	.04	-.17
1. 어떤 사람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여부	-.05	.66	-.00
2. 어떤 사람이 약하거나 취약한 사람을 보살폈는지 여부	.07	.89	-.12
3. 어떤 사람이 잔인했는지 여부	-.01	.59	.24
4.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받았는지 여부	.11	.26	.54
5. 어떤 사람이 불공평하게 행동했는지 여부	.00	.04	.79
6. 어떤 사람의 권리가 무시당했는지 여부	-.02	-.07	.74

주. 요인1=규범준중, 요인2=위해, 요인3=공정성

본 연구에서는 원 개발자의 도덕 판단 문항은 한국인들의 도덕적 기반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타당도 분석은 모두 도덕 관련성 문항들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상기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도덕 관련성 문항들의 요인구조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B를 사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5를 살펴보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3요인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3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χ^2	df	RMSEA	TLI	CFI
3요인모형	82.23	41	.07	.91	.93

신뢰도와 하위요인간 상관

도덕 관련성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척도의 내적 적합도는 .80으로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집단규범준중: .83, 공정성: .77, 위해: .69). 표 5에 제시된 하위 요인별 상관을 살펴보면, 위해와 공정성은 .48($p < .01$), 위해와 집단규범준중은 .29($p < .01$), 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공정성과 집단규범준중은 .15($p = ns$)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해는 나머지 두 요인인 공정성 및 규범준중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지만 공정성과 집

표 5. 도덕적 관련성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간 상관 행렬

	요인1 (규범준중)	요인2 (위해)	요인3 (공정성)
요인 1	1		
요인 2	.29	1	
요인 3	.15	.48	1

단규범준중은 크게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렴타당도

도덕 관련성 항목의 하위요인이 슈와츠의 가치척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표 6을 살펴보면, 집단규범준중 항목은 SVS의 권위 가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내집단 및 순수함과도 상당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위해 항목은 SVS의 위해가치와 가장 높은 상관을, 공정성 항목은 SVS 공정성 항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집단규범준중항목은 SVS의 개인 관련 가치에 비해 집단관련 가치들과 뚜렷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공정성 항목은 SVS 집단 관련 가치와는 뚜렷하게 구별되게 개인관련 가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위해항목은 SVS의 위해와 관련된 가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집단결합관련 가치와도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준거관련타당도

도덕 관련성 항목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도덕하위요인과의 상관분석과 도덕적 기반척도를 예측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현적 정치적 성향의 평균은 3.79($SD = 1.35$)로 중립이 4점인 것을 고려해 보면, 약간 진보적 성향으로 치우쳐 있었다. 내현적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IAT 점수는 평균 -0.7 ($SD = 0.48$)로 역시 외현적 정치성향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도덕 관련성 항목의 하위 요소와 정치적 성향 척도와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 외현적 정치성향은 집단규범준중 및 공정성과, 내현적 정치성향은 집단규범준중과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3개 하위요소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외현적 정치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한 전체 회귀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08$, $p < .01$, 하위 요소 중 집단규범준중과 공정성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IAT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체 모델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p = .13$), 하위 요소에서는 집단규범준중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도덕 관련성 항목은 외현적 정치성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종합하면, 외현적, 내현적 측정값 모두에서 예상대로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보일수록 집단규범준중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공정성 점수는 진보적일수록 높았으나 유의도는 외현적 측정값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점수는 정치적 성향과 유

표 6. 도덕 관련성 항목과 슈와츠 가치척도간의 상관 및 슈와츠 가치척도의 기술통계

	SVS-위해	SVS-공정성	SVS-내집단	SVS-권위	SVS-순수함
집단규범준중	.27**	.14	.58**	.63**	.49**
위해	.34**	.29**	.30**	.22**	.28**
공정성	.29**	.34**	.13	.08	.12
평균	4.92	4.95	4.62	3.86	4.08
표준편차	1.19	1.07	1.21	1.25	1.3

주. SVS-위해=도와주기, 책임, SVS-공정성=사회정의, 평등, SVS-내집단=소속감, 국가안보, 가족안전, 충성심, SVS-권위=사회질서, 공손함, 전통준중, 권위, 경로사상, 순종, SVS-순수함=영적생활, 자기훈련몰입, 독실한, 깨끗한

* $p < .05$, ** $p < .01$

표 7. 정치적 성향에 대한 도덕 관련성 항목의 하위요인과의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외현적 정치성향			내현적 정치성향(IAT)		
	γ	B	β	γ	B	β
규범존중	.21**	.32**	.23**	.18*	.09*	.19*
위해	-.02	.03	.02	-.02	-.01	-.03
공정성	-.16*	-.33*	-.19*	-.08	-.05	-.09

주. * $p < .05$, ** $p < .01$

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아 위해라는 요인은 정치적 성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과 가치 영역을 평가하는 도덕적 기반 질문지가 한국 사회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연구와 달리,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구조는 한국인 표본에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두 개의 하위항목 중 도덕 판단 문항들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요인 구조를 전혀 얻을 수 없었다. 이는 원저자들도 밝혔듯이, 도덕 판단 문항들이 도덕 관련성 문항들과 달리 훨씬 구체적이고 맥락화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Graham et al., 2009).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덕 관련성은 잔인, 불공평, 권리, 애국심, 배신, 충성 등 추상적인 가치를 제시하여 비교적 문화보편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도덕 판단 문항은 상기한 추상적인 가치가 구현된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예, 동물학대, 빈부의 차이, 역사자부심, 성역할, 자연본성 등)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도덕’이라는 개념을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

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해당 상위개념을 대표하는 정도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척도는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도덕 관련성 척도의 개념에 대해 도덕 판단 척도에서 동물학대라는 구체적인 예로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가 약자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보편적인 전형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최근 한국에서도 동물학대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 등 서구와 같이 중요한 가치로는 여겨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도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이재호, 조궁호, 2014) 도덕 판단 척도에서 원저자들이 제시한 5요인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30대 이상이 약 70%를 차지한 본 연구에서는 5요인 구조가 도출되지 않은 것도 연령별 문화에 따라 특정 행동(예,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도덕 관련성 문항들에서도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5요인 구조를 확인하는 데 실패하였다. 개인적 가치에 해당하는 위해와 공정성 요인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나 나머지 결속적 가치인 내집단, 권위, 순수함에 대해서는 3요인으로 제대로 묶이지 않았다. 결속적 가치 문항 중에서 내집단가치의 애국심과 충성 문항, 권위가치의 권위존중, 전통순응 문항, 순수함가치의 신이 인정할만한 행동

문화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이들 문화는 모두 집단의 암묵적인 전통과 규범에 대한 존중 행동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Kim등(2012)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국 대학생 샘플을 대상으로 한 상기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5요인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원저자인 Graham 등(2011)의 타당화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5개의 도덕적 기반이 다양한 문화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34,476명의 총 표본 중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사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5요인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들 중 동아시아는 총 163명뿐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모델 적합도는 총 11개지역 중 가장 낮았다(RMSEA=.049, CFI=.729). 또한 해당 연구에 참여한 아시아 피험자들의 연령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샘플의 특성을 알 수는 없으나 연구가 YourMorals.org 사이트에 사전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영어로 설문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면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집단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이 단지 거주지가 동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5요인 구조가 적합함을 제시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적어도 한국표본에 대해서는 5요인 구조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인들의 도덕적 가치 구조는 미국 및 서구의 가치 구조와 다른가? 도덕적 기반 이론에서 5요인을 제시한 것은 본래 도덕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공정성 중심의 개인적 접근 정의가 서구중심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결속적 가치 또한 도덕적 가치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Graham 등(2011)의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 개인적 가치와 결속적 가치 2요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도덕적 관련성 문항만을 대상으로 2요인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가치와 결속적 가치로 정확하게 묶인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도 개인적 가치와 결속적 가치가 분리된 도덕 기반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3개 요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난 것은 개인적 가치와 결속적 가치의 하위구조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서구와 다소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먼저, 결속적 가치가 3개 요인으로 분화되지 않고 집단규범존중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만 나타난 것은 한국인에게는 내집단, 권위, 순수함이라는 가치가 명료하게 구별되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과 권위 문항 총 6개 중 4개가 집단규범존중 요인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인들은 내집단에 대한 충성과 권위라는 가치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가치에 해당하는 좀 더 세분화되고 풍부한 문항을 가지고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도덕적 기반과 서구의 도덕적 기반간의 차이는 하위 가치간의 상관에서도 관찰된다. 원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Graham et al., 2011), 세 개의 결속적 가치들은 이해와 -.01~.09, 공정성과는 -.16~-.09의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개인적 가치인 이해와 공정성간에는 .72에 이르는 높은 상관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결속적 가치인 집단규범존중은 이해와는 .29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공정성과도 .15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같은 개인적 가치인 이해와 공정성간에도 .48의 상관을 보여 기존 연구의 .72보다는 상당히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하위요인간 상관의 차이는 한국인과 서구인이 도덕적 기반을 인식하는 양상이 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연령은

20대이기는 하나같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Kim 등(2012)의 연구에서는 결속적 가치들과 위해와의 상관은 .23~.34, 공정성과는 .15~.24, 위해와 공정성과의 상관은 .57로 나타난다. 이재호와 조근호(2014)의 연구에서도 결속적 가치들과 위해는 .13~.42, 공정성과는 -.06~.14, 위해와 공정성은 .4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들은 개인적 가치와 결속적 가치를 아주 명료하게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한국인들은 위해와 결속적 가치간의 상관을 서구인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서구에 비해 여전히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다는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집단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은 개인적 가치를 판단할 때도 집단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구에 비해 도덕적 기반들간의 상관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과도 집단 규범준중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이 공정성이었으며 위해는 정치적 성향을 예측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두 연구에서도 역시 위해가치에서는 진보와 보수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한 바대로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이 주로 집단규범준중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위해라는 가치는 정치적 성향 차이를 그다지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기한 위해가치의 독특성이 반드시 한국문화에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Schein과 Gray(2015)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에 근거하여 판단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하며, 일련의 실험을 통해 진보와 보수가 모두 위해기반의 도덕 템플릿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람들은 위해에 대한 전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과 그 반대의 규범적 행

동을 비교하여(dyadic comparison) 도덕적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위해라는 가치가 유독 한국인들에게 다른 도덕적 가치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Schein과 Gray가 주장했듯이 위해가 도덕판단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명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기반 질문지와 상관관계가 외현적 정치성향에 비해 내현적 정치성향에서 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태도와 내현적 태도와의 불일치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Cameron, Brown-Iannuzzi, & Payne, 2012; Oswald, Mitchell, Blanton, Jaccard, & Tetlock, 2013). 특히 정치적 태도, 심리적 건강, 구매선호, 약물사용, 성적 선호 등의 영역에서는 IAT보다 외현적 태도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Greenwald, et al., 2009), 정치적 영역을 측정했던 본 연구에서도 역시 이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쉽게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정치성향을 측정하였으나 역시 본 연구도 내현적 정치성향 측정이 외현적 정치성향 측정값에 비해 더 타당한 측정값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적 샘플수가 적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한국인을 잘 대표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도덕적 기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기초 분석 결과,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적 기반이 크게 20대~40대가 한 집단, 50대 이상이 한 집단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표본을 다수 확보하여 이들의 도덕적 기반과 40대 이하의 도덕적 기반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세대간의 갈등이나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층을 다수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도덕적 기

반 질문지가 대학생이 아닌 한국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잘 맞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한국인과 서구인의 도덕적 기반의 하위구조가 다소 다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박명호 (2012). 정치적 태도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세대와 고령화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5(4), 145-162.
- 이재호, 조공호 (2014). 정치성향에 따른 도덕판단기준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1-26.
- 정은경,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간통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27-741.
-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 재개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93-105.
- 최유정, 최섯별 (2013). 연령대별 세대 의식과 정치적 태도를 통해 본 세대의 경계: 정치적 세대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사회과학 연구논총, 29(2), 159-201.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Cameron, C. D., Brown-Iannuzzi, J., & Payne, B. K. (2012). Sequential priming measures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A meta-analysis of associations with behaviors and explicit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 330-350.
- Graham, J., Haidt, J., Koleva, S., Motyl, M., Iyer, R., Wojcik, S., & Ditto, P. H. (2013). Moral Foundations Theory: The pragmatic validity of moral plural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 55-130.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1029-1046.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366-38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17-41.
- Haidt, J. (2008). Moralit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65-72.
- Haidt, J., & Graham, J. (2007). When morality opposes justice: Conservatives have moral intuitions that liberals may not recognize. *Social Justice Research*, 20, 98-116.
- Haidt, J., Graham, J. (2009). Planet of the Durkheimians, where community, authority, and sacredness are foundations of morality. *Social and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System Just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idt, J., & Joseph, C. (2004). Intuitive ethics: How innately prepared intuitions generate culturally variable virtues. *Daedalus*, 133, 55-66.
- Haidt, J., & Joseph, C. (2008). The moral mind: How five sets of innate intuitions guide the

- development of many culture-specific virtues, and perhaps even modules. *The innate mind*, 3, 367-391.
- Karpinski, A. (2004). Measuring self-esteem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he role of the 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22-34.
- Kim, K. R., Kang, J. S., & Yun, S. (2012). Moral Intuitions and Political orientati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sychological reports*, 111, 173-185.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Lewis, G. J., & Bates, T. C. (2011). From left to right: How the personality system allows basic traits to influence politics via characteristic moral adapt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2, 546-558.
- Oswald, F. L., Mitchell, G., Blanton, H., Jaccard, J., & Tetlock, P. E. (2013). Predicting ethnic and racial discrimination: A meta-analysis of IAT criterion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5, 171-192.
- Schein, C., & Gray, K. (2015). The Unifying Moral Dyad Liberals and Conservatives Share the Same Harm-Based Moral Templa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doi: 10.1177/0146167215591501.
- Schwartz, S. H. (2007). Value orient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ross nations. In Jowell, R., Roberts, C., Fitzgerald, R., & Eva, G. (Eds.), *Measuring attitudes cross-nationally: Lesson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pp. 161-193). London: Sage.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 H.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CA: Sage Publications.

1 차원고접수 : 2016. 01. 09.

수정원고접수 : 2016. 05. 09.

최종게재결정 : 2016. 07. 11.

The Application of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for Korean Adults

Eun Kyoung Ch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nghyuk Park

University of Missouri

Suran Lee

Baekseok University

Young Woo Sohn

Yonsei University

The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developed based on the moral foundations theory (Haidt & Joseph, 2004) was validated in the western culture. However, it is equivocal whether the foundations are applicable in Korean culture since the moral foundations vary across cultures. Therefore, this study, undertaken with Korean adults ($N = 327$, $Mage = 35.83$), validated the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us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yielded a 11-item questionnaire with three factors (respecting group norms, harm/care, and fairness/reciprocity) compared to five factors (harm/care, fairness/reciprocity, authority/respect, in-group/loyalty, and purity/sanctity) of original versio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with measures of value orientations and political inclination, partially supported both the converge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ies of the Korean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Based on this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 moral foundations theory,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scale validation, political inclination